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3호 [무제 제26077호] 주제 107 (2018)년 7월 22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신도군의 주민세대들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의 서북단 신도군의 주민세대들에 온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셨다.

신도군을 대규모의 갑성신기지,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더 잘 꾸밀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섬에서 사는 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며 교통조건까지 세심히 배려해 주시도록 보내주신데 이어 모든 세대들에 갖가지 생활용품들을 안겨주시는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이 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자육이 어려지는 때의 땅을 가꾸는 섬주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특별한 사랑이 깃들여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9일과 20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안성수 동지, 평안북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리춘관 동지, 신도군의 인민들과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안성수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인민의 행복에서 제일 큰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도군의 주민들에게 이 세상 천만 부부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시혜기술의 함계에 지리잡고있는 섬인민들을 자신의 마음속 제일 가까운 곳에 두고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렸다.

연설자는 모든 인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늘의 이 행복을 한시도 잊지 말고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호의 불길놀이 갈등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함어오르는 감격속에 전달되었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끊임없이 빛나고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파도사나를 바다길과 협한 감동깊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군을 찾으시어 나아가길 완히 밝혀주시었

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하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저한 사랑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섬해 북면에 천도개벽의 새 역사를 펼쳐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갈발비평편의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트랙트와 농기계, 농기구의 가동률을 높여 기계화비중을 질적으로 높임으로써 감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군의 실정에 맞는 다수화물품들을 배치하여 정보당 알뜰수확고물 원천 높이며 축산, 양어, 비섯, 온실남생산기지를 활성화하여 섬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개선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말없는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함으로써 미담에 새겨진 전세위인들의 사랑의 력사를 세세넌넌 길이 전해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추동하신 걸출한 수령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칭송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널리 칭송하고있다.

민주공화국인 《라브니르》는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이께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불세출의 위인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은 주제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추동하신 사상리론의 거장, 걸출한 수령이시다고 찬양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포럼에서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적 독립을 이룩한 나라 인민들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자기의 힘으로 새 사회건설을 진행해나갈 도를 이끌어 주시었다, 그의 업적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아로새겨져있다고 지적하였다.

폴란드에서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었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주석의 고귀한 생애를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신문 《자브트라》는 이렇게 썼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반제자주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싸우는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시었다.

결과 많은 나라 인민들이 식민지독재방위업을 성취하고 새 사회건설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벨라루스카담은 동유럽대세력들의 분열과해책등을 짓부시고 더욱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예질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사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생애는 자주로 빛나는 한평생이라고 말할수 있다. 많은 나라와 국제 및 지역기구들, 각계인사들이 그이께 존경과 애달, 명예칭호 등을 수여해드리고있다.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 올린 김일성주석의 고귀한 업적은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오스트리아 준비위원회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16일 현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제속전임의 서기관 토마스 뢰쉬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9.9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높은 생산적양양을 일으키자

9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언제공사에서 전례없는 위훈 창조

강원도안의 군민발전소언제건설장들에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선출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안의 여러 군민발전소언제건설장에 펼쳐나선 인민들과 건설자들이 공사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작품의 첫발을 막은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만도 언제건설에 동원된 인민들과 건설자들은 강건한 돌기돌을 들어대어 언제기초공사와 언제공로프리트기, 언제가배수로공사에서 성과를 거둔데 이어 계속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도출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지지를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능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회의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에 맞게 그들을 불러 일으키는 최선적정치사업을 제기하게 되었고있다.

당원회의의 책임인민들은 군민발전소언제건설장들에 자주 나가 공사진행정형을 구체적

으로 료해하고 공사를 막역있게 내밀도록 결된 문제들을 즉시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당원회의의 지도밑에 도 군민발전소언제건설장들에서는 능력이 있는 인민들을 언제건설장들에 파견하여 공사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도록 하는 한편 세번드와 강제, 중량화물차들과 유압식굴삭기를 비롯한 건설기계들과 문전기제들을 운 제에 보강해주어 공사가 일정계획보다 앞서나가게 하고있다.

특히 지휘부에서는 세포군민발전소를 비롯한 도안의 발전소건설장들에서 언제가배수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고있다.

이전, 새로, 평강, 회양, 금강, 고성군당원회의들과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언제공사를 일원화되도록 앞선가도도록 노력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군안의 선진적동맹을 동원하여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인민들과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다.

언제건설을 맡은 단위의 인민들이 건설장들의 어려운 모험들을 맡고 대중을 이끄는 최선의 기관차가 되어 공사조직과

지휘를 전무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머뭇머뭇에서는 유압식굴삭기를 비롯한 장비들을 기동적으로 배치하여 기초하여 모든 공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새로운 공법들을 받아들여서 매일 말기적 공사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자양을 떨치고있다.

이전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혁신의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언제공로프리트기를 맡은 현 두정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의 인민들과 건설자들은 언제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수 있게 종합공항과 이종식혼합기들을 이용하여 언제공로프리트기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공사가일을 보장하는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곳 인민들과 건설자들은 언제공로프리트기를 다그치기 위한 합리적인 공법들을 널리 받아들이고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새로, 회양, 평강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군민발전소언제건설장에서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세포군민발전소와 회양군민발전소, 평강군민발전소와 고성

군민발전소언제건설을 맡은 인민들과 건설자들은 언제가배수로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돌기돌을 들어대고있다.

언제가배수로공사는 발전소 건설에서 중요한 공사대상중의 하나이다. 언제가배수로공사를 하루빨리 끝내야 발전소언제설기를 본격적으로 내밀수 있다.

세포군민발전소언제건설을 맡은 세포군안의 인민들과 건설자들은 언제가배수로기초공작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진두를 벌이고있다.

공사를 책임진 인민들은 언제가배수로기초공작을 담당하는데 맞게 대외의 기수가 되어 이신 자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고있다.

공사의 많은 몫을 맡은 세포군 1대대의 인민들과 돌기돌들은 언제가배수로기초공작을 짧은 기간에 끝낼 성과를 올리고 하면서 점진적혁신의 불길놀이 공로프리트기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이곳 대대에서는 문전기제들의 단가등을 보장하는 한편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방대한 언제우안중심강토굴삭과제들 기본적으로 해결된 기세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회양, 평강, 고성군민발전소언제건설을 맡은 인민들과 건설자들은 강건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언제가배수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하여 총력투쟁을 집중하면서 매일 말기적 공사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전, 새로, 평강, 회양, 금강군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단체에서 달려나온 인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가두너서들도 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지는 주안단 팀장에서 언제건설장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문원강철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지원하고 건설장들에 더 많은 건설자제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불꽃나는 진두를 떨려나가고있다.

군민발전소언제건설에 동원된 도안의 인민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성과는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파기자 신현 일

새로운 2차가공유리생산공정 확립

대안천선유리공장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년을 승리의 대추전장으로 빛내기 위해 펼쳐나선 대안천선유리공장의 발전모를 파시하고 오랜 건축물들을 원상복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공장에 2차가공유리생산공정들이 새로 꾸려진것은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호전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한 성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질 좋은 판유리생산과 함께 특수유리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갈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문전기제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유리제품을 개발함에 대한 과업과 당도를 제시하시고 이곳 생산자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호전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인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최단기간에 새 공정들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새로운 유리생산공정들을 확립한 이곳 인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유리제품의 가치수를 더욱 높이고 그 질을 높일 목표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걸출하고있다. 본사기자 지원 현

연간계획완수자들이 늘어난다

합흥모방직공장에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합흥모방직공장에서는 연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늘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7월 상순까지 공장적으로 수십명의 로동자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에 깃들여지는 일에서 일하는 중지의 자부심을 안고 공화국

장년 일꾼들을 빛나는 로력적성 과로 맞이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인민들과 로동자들의 높은 총성심과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인민들은 뜻깊은 올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전에서 만 리마를 한 기세로 다시한번 중산수행에 떨쳐나서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전우현장의 곳곳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인민들의 최선적정치사업은 로동자들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훈창조로 떠나는 추풍벽으로 되었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권리미의 대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나누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될 불리는 열의에 넘쳐 전진의 보폭을 크게 내걸었다.

1직조직장 직조공 정숙심은 무는 여러 기대를 받아보면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공정적으로 제일먼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그러를 이어 같은 직장의 직조공 주정화, 직조준비직장의 연사공무원 채옥선, 김은혜, 류정숙, 리영순동무들이 맡겨진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끝내는 자양을 떨치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새한 열풍속에 직조준비직장의 합사공 박송희, 1직조직장의 직조공 조은희, 전일방직직장의 연사공 주영미, 정방공 양선애, 완성직장의 전명숙동무들도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공장안에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특파기자 김경 현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조선산화강석광산에서- 본사기자 김진 명 특음

사회주의 만세소리 더 높게 울려 퍼지게 하자

세 차게 끓고 있는 삼지연군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결사관철의 의지로 불타는 백두전역

216사단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

백두전역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시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삼지연군건설을 통하여 현대 문명이 융숙된 산간도시의 전형을 창조하고 그 경협을 일반화하여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살 무렵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산악같이 일떠서 총돌격전을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단 결심하고 달려들면 단숨에 끝장을 보고야마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창조진풍을 본받아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연대와 연대를 뛰어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시말씀을 끝없는 격조높게 받아안은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인들, 돌격대원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자.

이런 결사의 각오를 안고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대담하고 용이한 전투목표를 세웠다.

7월말까지 살림질, 공공건물물공공사 기본적으로 완성 및 내외부미장공사 50%, 1만여㎡의 하부방공사, 8 000㎡의 도로정리, 다리물공사완성, 송전선공사를 비롯하여 방대한 공사과제들을 수행하는것이였다.

이것은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총성의 명세와 결사관철의 의지를 반영한 전투목표였다.

때없이 내리는 비속에서 이렇듯 높은 전투목표를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모두는 하루빨리 공사를 다그쳐 끝낼 불같은 열의에 넘쳐 총돌격전을 벌여나가고있다.

현장지휘부 지휘성원들이 떠날때, 대담명, 단제명전투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부방공사와 도로, 지대정리를 줄기차게 내밀면서 살림질과 공공건물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발발은있게 진행되고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도사업과 보장사업을 책임지고 힘써진, 전진전을 벌여 삼지연군을 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내는데 대하여 주신 전투목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태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지휘성원들은 전투장을 타고

백두전역의 조건에 맞는 앞선 건설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그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받들 위하여 얼마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누구보다 과학기술의 주인으로 준비하고있다.

성, 중앙기관련단의 여러 대에서 남먼저 자류리철근을 리용한 발판설치방법과 석부사와 부마감전생산방법, 모래전선기, 자동미장기를 비롯한 건설설비들을 장안제작하여 내놓았다. 이에 뒤질새라 백두산영웅청년러련단의 청년들에서 나무집을 리용한 창시생산, 벽체공사에서 저장도사블록로를 리용한 일제식벽체공법까지 기법들을 비롯하여 삼지연군에 관한 건설자재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이 려구 도입하고있다.

어제 이틀뿐이라, 9 22건설 61 8 건설비만, 철길같이 실려나오는 부사역장지, 부사역장지를 비롯한 마강건설 생산을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해나가고있다. 그 과정에 수백종의 기술혁신안들이 나와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지휘부에서는 대중속에서 나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시말씀을 다그쳐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군으로, 삼지연군가가무 생산공장을 전국의 모범공장, 본보기공장으로 꾸러자!

군당일군들의 불같은 총성의 명세와 결사관철의 의지가 차려지는 목표이다.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아예 단위에 일군들을 내려보내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리우고있으며 군중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쳐나가는 조직적사업을 펴고있고있다.

군당일군들은 농장, 작업반, 분조, 삼지연군가가무생산공장과 돌격대공정건설장, 삼지연군구리기전투장들을 타고있어 군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고무부상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군안의 협동농장들에 나간 군당일군들은 최선적지시사항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농업근로자들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면서 농작업에 용이시키고 역량을 막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있으며 특히 고리형순환생산지제를 확립하여 감자밭의 수확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목표를 세우고 선전에 옮기고있다.

총지침정수리수를 최고 6배, 농작업생산량을 10배이상... 어제 이틀뿐이라, 해당 일군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밟아 갔다오며 삼지연군 일군들

일군들이 정점으로 마을의 문을 열고 찾아와 추이아기를 비추고 있는 선정정,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군당위원회의 그날의 높은 뜻을 뼈에 새기고 조속시에는 물론 구천 농촌분조의 모든 주민세대들에게 나가 살림살이정형을 료해하고 걸린 문제들을 즉시 풀어주는 군당일군들의 모습을 목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시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군을 전국의 본보기군, 공산주의의 상징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당일군들의 위훈 따라 온 군이 분발해나간다.

펜사기자

삼지연군구리기건설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

이들중안에 수천㎡의 기초굴착공사 및 흙쌓기와 암거, 옹벽공사를 위한 현이간(현이)의 공리트치기, 막돌쌓기, 5 000여㎡의 미장공사를 동시에 내밀어 하천을 정비...

이것은 삼지연군구리기에 펼쳐나선 조선인민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구상을 실현해나가는데 언제나 기수, 돌격대 가 될 결사의 각오를 안고 7월초에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자로의 일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인민을 돕는 구조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군인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주동이 되어야 합니다.》

때없이 내리는 비로 하여 하천 주변의 살림질 팔조공사에서 많은 예로 볼 수 있듯이, 살림질과 군인건설자들은 일제히 하천 정비현장에 실어나르도록 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휘둘러 쓰지 않고 기수, 옹벽공사를 일제적으로 해쳐나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블록을 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단 하루동안에 결속하였다.

안단의 준비를 갖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일제히 하천 정비현장에 진입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의 불같은 정신력이 옹벽공사를 벌여나가는 불바람을 불조기처럼 부글부글 끓여버렸다.

지휘관과 병사가 따로 없었다. 조선인민군 주중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제때마다 흠뻑 대를 메고 무릎치는 강협속에 뛰어들어 가름막이공사를 하고 기초와기둥을 서두를 때 함미와 정대, 삼자수를 으스스지게 불어던진 조선인민군 파견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그에 뒤질새라 일만을 가버려 기조과기를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영웅적투쟁의 열풍을 일으키자

이것은 삼지연군구리기에 펼쳐나선 조선인민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데 언제나 기수, 돌격대 가 될 결사의 각오를 안고 7월초에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자로의 일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 크게 설계하며 열의를 찾아내고 긴장하되 전투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백두산영웅청년러련단 성, 중앙기관련대건설장에 가면 류타른 하루전투총화 목격할수 있다.

현대적인 하루전투총화로부터 후방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과학적으로 분석 종합한 통찰자로서의 높은 기조와 지향성을 보여주는 전투총화이다.

그 과정을 놓고보면, 먼저 현대지휘부일군들은 해당 통찰자가 다가갈 혁신을 일으키는 데 성취의 비결이 있는것이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전반적인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대적, 현대지휘부에서 시행되던 단위가 생기면 받아 도와주도록 분담했다.

팔조공사가 한창이던 때 이 다같이 혁신을 일으키는 데 성취의 비결이 있는것이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전반적인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대적, 현대지휘부에서 시행되던 단위가 생기면 받아 도와주도록 분담했다.

9 22건설비만 라선시련대 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시말씀을 다그쳐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군으로, 삼지연군가가무 생산공장을 전국의 모범공장, 본보기공장으로 꾸러자!

군당일군들의 불같은 총성의 명세와 결사관철의 의지가 차려지는 목표이다.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아예 단위에 일군들을 내려보내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리우고있으며 군중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쳐나가는 조직적사업을 펴고있고있다.

군당일군들은 농장, 작업반, 분조, 삼지연군가가무생산공장과 돌격대공정건설장, 삼지연군구리기전투장들을 타고있어 군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고무부상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군안의 협동농장들에 나간 군당일군들은 최선적지시사항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농업근로자들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면서 농작업에 용이시키고 역량을 막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있으며 특히 고리형순환생산지제를 확립하여 감자밭의 수확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목표를 세우고 선전에 옮기고있다.

총지침정수리수를 최고 6배, 농작업생산량을 10배이상... 어제 이틀뿐이라, 해당 일군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밟아 갔다오며 삼지연군 일군들

류타른 하루전투총화

백두산영웅청년러련단 성, 중앙기관련대에서

자료를 놓고 하루작업에서 거둔 성과와 결함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때 현대의 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상황분별의 의견을 들으면서 걸린 점이 무엇이며 후방에서는 측면이 어떤 것인가를 손꼽아 이야기하며 일제 된다.

자기 단위뿐 아니라 다른 단위의 작업과정까지 직접 화면을 통해 보면서 진행되는 작업총화 시간을 리용하여 보며주사업과 관련한 통찰자로서의 높은 대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 다같이 혁신을 일으키는 데 성취의 비결이 있는것이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전반적인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대적, 현대지휘부에서 시행되던 단위가 생기면 받아 도와주도록 분담했다.

9 22건설비만 라선시련대 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시말씀을 다그쳐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군으로, 삼지연군가가무 생산공장을 전국의 모범공장, 본보기공장으로 꾸러자!

군당일군들의 불같은 총성의 명세와 결사관철의 의지가 차려지는 목표이다.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아예 단위에 일군들을 내려보내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리우고있으며 군중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쳐나가는 조직적사업을 펴고있고있다.

군당일군들은 농장, 작업반, 분조, 삼지연군가가무생산공장과 돌격대공정건설장, 삼지연군구리기전투장들을 타고있어 군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고무부상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군안의 협동농장들에 나간 군당일군들은 최선적지시사항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농업근로자들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면서 농작업에 용이시키고 역량을 막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고있으며 특히 고리형순환생산지제를 확립하여 감자밭의 수확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목표를 세우고 선전에 옮기고있다.

총지침정수리수를 최고 6배, 농작업생산량을 10배이상... 어제 이틀뿐이라, 해당 일군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밟아 갔다오며 삼지연군 일군들

실속있는 현장지휘가 성과를 안아온다

9 22 건설비만 라선시련대에서

작업조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 목적은 시공의 전문화수준을 보다 높이는것이였다.

즉시 철근가공, 목재가공, 편자감산물처리대가 조직되고 현대적인 구제화된 계획에 따라 모든 작업을 전문화할수 있었다.

이렇게 하니 모든 돌격대원들이 수행해야 할 목표가 뚜렷해지고 그들의 정정심과 책임심이 높아졌다.

현대적 막음일소속부대 일군들과 함께 집중은 건설자재

작을 내게 하지만 자기 단위의 물질기술적적력들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일단 시작한 일은 최연에 풀이 될것처럼 단숨에 해쳐나오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를 이렇게 본 현대일군들은 시책일군들과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시에서는 기능공들로 돌격대를 조직하여 전투현장에 파견함으로써 벽체기와 철근조립, 송막기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높은 속도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설의 계획기회를 높일데 대한 당정책대로 혼합기, 수직물동운반기 등을 보내주었다.

이와 함께, 행정일군들처럼 봉사 가 방대하고 이따금씩 전투조와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간다면 삼지연군구리기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것이 현대가 앞선 단위로 된 비결이다.

펜사기자



고온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현실적 조건에 맞게 세운 논물관리작전

무슨 일이든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작정을 잘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논물관리작전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높은 방법론으로 완강하게 내미고있는 신천군일꾼들의 사업은 경탄적이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 자립협동농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 일꾼들의 투쟁 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꾼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의 일본새가 안발칠때면 우리에게 절망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디다.》

신천군일꾼들은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논벼생육후반기비관리를 심중히 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논벼이끼가 팔다고 이삭이 생기는 이 시기에 갑자기 고온이 예상되는 논이 논벼생육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이다.

논벼는 고온이 올라가면 뿌리기능과 및 합성호르몬이 떨어져 흡수기능과 빨라지면서 영양공급의 속도와 소비의 균형이 파괴된다.

일꾼들은 이런 조건에 맞게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과학적인 논물관리방법에서 찾았으며 여기에 힘을

신천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넣었다. 특히 관수조건이 유리한 논에 집중하여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논물관리작전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높은 방법론으로 완강하게 내미고있는 신천군일꾼들의 사업은 경탄적이다.

《지금 우리 일꾼들의 투쟁 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꾼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의 일본새가 안발칠때면 우리에게 절망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디다.》

신천군일꾼들은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논벼생육후반기비관리를 심중히 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논벼이끼가 팔다고 이삭이 생기는 이 시기에 갑자기 고온이 예상되는 논이 논벼생육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이다.

논벼는 고온이 올라가면 뿌리기능과 및 합성호르몬이 떨어져 흡수기능과 빨라지면서 영양공급의 속도와 소비의 균형이 파괴된다.

일꾼들은 이런 조건에 맞게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과학적인 논물관리방법에서 찾았으며 여기에 힘을

일부 농작물의 물길은 물에

일부 농작물의 물길은 물에 물길가지기를 진행하였지만 그사이 물이 지하 불통과 수력이 낮아졌다. 이때에도 일꾼들은 지체없이 물길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을 또다시 조직하였다.

반정, 시원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물길에 쌓인 갈판과 모래를 걷어내면서 물길정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갈판을 파내고 물길을 정리해 풀이내면서 전두를 벌리었다.

군간의 가관, 기업소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이들을 도와나섰다. 그리하여 물길의 불통과 수력을 더욱 높여 논물관리에 지장이 없게 하였다.

일꾼들은 고온현상이 지속되는데도 논물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내미었다.

이렇게 되어 모든 농장에서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져 고온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논벼생육을 더 좋게 할수 있는 담보로 마련해 놓았다.

구체적실정에 맞게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는 군일꾼들의 창조적일꾼들은 본받을만 한 것이다.

강남군 마정협동농장에서

경에하는 최고명도자립협동농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근로자들은 사외주의호헌의 제1제대 제1선출수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이었다. 포진을 돌아보는 강남군 마정협동농장 일꾼들이 조신형, 리영무동무들의 마음은 흐트러졌다.

비가 자주 온데 이어 고온현상이 계속되는 불리한 날씨조건에 맞게 일터비료주기를 비롯한 과학적인 영양관리와 과학적인 논물관리를 하고있을경우 농작물의 생육이 왕성해졌던 것이다. 또 논전에 깊은물대기방법으로 깊은물대기방법을 적용한 논밭에서 논벼의 생육이 왕성해졌고 나비병을 포진하는 속에서도 논벼생육을 더 좋게 할수 있는 담보로 마련해 놓았다.

구체적실정에 맞게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는 군일꾼들의 창조적일꾼들은 본받을만 한 것이다.

해충피해막이대책을 실속있게

해충피해막이대책을 실속있게

해충피해막이대책을 실속있게

해충피해막이대책을 실속있게

강주군 삼정협동농장에서

경에하는 최고명도자립협동농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농촌생활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집행하기 위해 펼쳐나선 강주군 삼정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고온피해방지사업에 힘을 넣어 다수확을 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과학농사방법이 세차게 들어오는 속에 농장에서는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요구대로 진행하여 포진마다에 좋은 작물을 마련해놓았다.

그런수확 농장일꾼들은 고온이 자란힘이 없어마음의 신념을 보여주고 농작물비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쳤다.

이들은 기상조건이 변화되는데 맞게 농작물들에 대한 비관리에 큰 힘을 넣었다. 특히 강변이탈에서 고온현상이로부터 나타날수 있는 여러가지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농장의 일부 강변이탈에서는 고온이 높아지면 고온다습에 의한 피해를 받을수 있기때문이었

신천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신천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신천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신천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논벼영양관리에 힘을 집중하여

논벼영양관리에 힘을 집중하여

논벼영양관리에 힘을 집중하여

논벼영양관리에 힘을 집중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북남단일립 2018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 경기대회 코레아공개탁구경기대회 혼성복식에서 제 1 위 쟁취

북남단일립 2018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 경기대회 코레아공개탁구경기대회 혼성복식에서 제 1 위 쟁취

북남단일립 2018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 경기대회 코레아공개탁구경기대회 혼성복식에서 제 1 위 쟁취

북남단일립 2018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 경기대회 코레아공개탁구경기대회 혼성복식에서 제 1 위 쟁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